



# 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그린솔루션/항공우주/스몰캡: 나승두, 3773-889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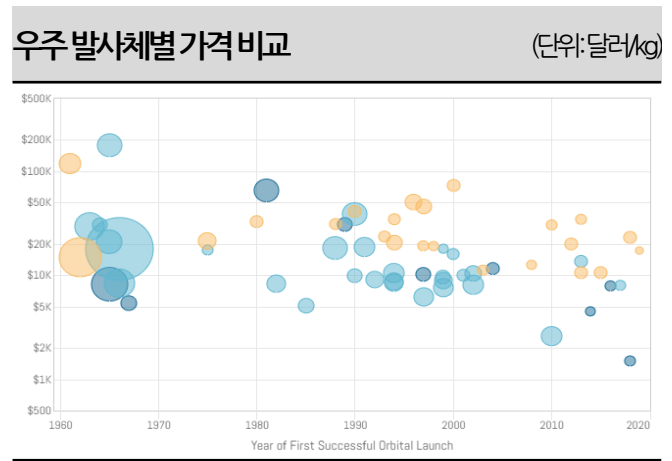


## 우주 산업, 확산 있는 경쟁이 기술 발전 및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

- Amazon, 저궤도 위성 발사를 위한 83회 로켓 발사계약 소식, 약 100달러(약 12조원) 투자 전망
- 향후 5년간 약 3,200여개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(LEO)에 쏘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카이퍼 프로젝트(Project Kuiper)
- 핵심 발사주체는 ULA(United Launch Alliance), Boeing과 Lockheed Martin이 5:5 비중으로 2005년 설립한 JV, Blue Origin은 ULA에 자체 개발한 로켓 발사엔진 공급 업체
- 이미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진행 중인 SpaceX 및 OneWeb과의 공식 경쟁 선언
- 현재 SpaceX 2,100여개 저궤도 통신 위성 보유, OneWeb 최근 발사 차질 빚으며 계획한 650여개 중 약 420여개 발사
- **우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지속적으로 발사비용 절감 경쟁으로 이어질 것**
- 과거 NASA 우주왕복선 발사비용 1kg 당 약 8,000만원 수준, 현재 SpaceX 팔콘9 로켓 1kg 당 180만원 수준
- 러시아 소유즈 로켓, 1kg 당 1,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, Blue Origin 2023년 상용화 목표로 하는 뉴 글렌 로켓은 1kg 당 180만원 수준 도달 예상
- **Elon Musk, 2~3년 내 Starship 발사비용 120억원 이하로 절감 선언, 최대 탑재 무게 150t 감안하면 1kg 당 8만원 수준**
- **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미래 로드맵 발표될 경우(발사 횟수 보장 등) 보다 공격적인 발사체 국산 기술 개발 및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**



자료: Amazon, SK증권



자료: CSIS, SK증권



## 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 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  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  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